

‘특급 유망주’ 박정인 “프로 선수로 가치 입증할 것”

광주FC 선수단 을사년 출사표



“벌써 프로 7년 차인데 보여준 게 없는 거 같아요. 하지만 올해만큼은 존재감을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큼니다.”

수년째 특급 유망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박정인이 올해 광주FC 유니폼을 입고 전성기를 꿈꾼다. 고교 시절 입증한 잠재력을 이정호 감독 지도 아래 폭발시키겠다는 다짐이다.

박정인은 최근 전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7년 차인데 벌써 다섯 번째 팀이다. 프로에 와서 보여준 게 없는 것 같다”면서 “광주FC에 와서 준비를 잘했다. 올해는 반드시 내 가치를 입증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박정인은 울산현대(현 울산HDFC)가 공들여 키운 유망주였다. 천안초 재학 중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내며 스카우트됐고 울산현대 U-15(현대중), U-18(현대고)을 거치며 국내 최정상급 공격수로 평가됐다.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19세 이하에서 23세 이하로 월반할 정도로 확실한 재능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대를 많이 받다 보니 부담감이 컸다. 하지만 6년 동안 프로 생활을 하며 많이 사라졌다”며 “한국의 해리 케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비교되기 보다 제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고 싶다. 박정인이라



고교 시절 국내 최정상급 평가 프로 진출 후 더딘 성장에 발목 이정호 감독 아래서 전성기 꿈 올해 두 자리 공격포인트 목표

는 이름 세 글자를 각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인을 두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치열한 영입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수원삼성과 FC안양 등 복수 구단이 러브콜을 보냈으나 최종 승자는 광주FC였다.

박정인은 “광주FC는 K리그에서 가장 힘들었던 팀이다. 전술적으로도 돋보였고 상대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서 경기를 뛰면서 꼭 한 번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다”며 “이정호 감독님이 에이전트를 통해 제안을 주셨는데 고민 없이 바로 선택을 했



광주FC 박정인이 광주축구센터에서 진행된 동계 훈련에 임하고 있다.

다.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가겠다고 했을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이정호 감독의 오피는 박정인의 재능을 만개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이 감독은 전남일보와 개막 인터뷰에서 박정인을 올해 키플레이어로 꼽기도 했다.

박정인은 “개인 면담을 했는데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겠다’고 딱 한 마디만 하셨다”며 “태극 전지훈련에서 최선을 다했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다.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움직임과 슈팅에서도 준

비를 많이 했고 올해는 자신 있는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선수 개개인에게 세밀한 피드백을 주는 지도자로도 알려져 있다. 박정인 역시 훈련과 미팅을 통해 선수로서 성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에 임하고 있다.

그는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훈련은 힘들지만 축구가 정말 재밌어졌다”며 “이렇게까지 축구가 재밌다고 느껴진 건 처음이다. 훈련을 하든 연습경기를 하든 빨리 운동장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고 매일매일이 기대된다”며 미소

를 숨기지 않았다.

재밌는 축구도 좋지만 프로 선수는 결국 경기장에서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 박정인의 프로 진출 이후 최고점은 부산 아이파크 소속이던 2021시즌 29경기에서 8득점 3도움인데 이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인은 “감독님께서 먼저 공격포인트를 일곱 개 이상 하면 선물을 준다고 하셔서 열 개 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약속도 새로운 동기부여가 됐다. 올해는 열 개 이상의 공격포인트를 올리겠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글·사진·한규민 기자**

OK 웃맨 럭비단, 첫 해외 전지훈련 돌입

22일까지 2주간 일본 오사카

광주를 연고로 한 웃맨 럭비단이 2025 시즌을 대비한 첫 해외 전지훈련에 돌입,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선다.

OK금융그룹은 웃맨 럭비단이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해외 전지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지훈련은 2025년 상반기 대회를 앞두고 웃맨 럭비단 전력을 끌어올리고자 마련됐다.

웃맨 럭비단은 약 2주간의 일정 동안 기술 역량 발전을 극대화하고 강도 높은 훈련으로 실전 감각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2월 해외 전지훈련 당시 합동훈련을 진행한 바 있던 일본 럭비 리그 원 디 비전2 소속 NTT 도쿄모 레드 허리케인

스와 올해도 두 차례 연습경기를 진행한다.

올해 창단 3년차를 맞이한 웃맨 럭비단은 이번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극대화해 한국 럭비 최강자로 도약한다는 각오다.

오영길 웃맨 럭비단 감독은 “꾸준한 전력 보강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웃맨 럭비단은 지난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올해도 성장을 거듭해 한 발짝 더 나아간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장 유기중은 “지난해 성과를 등에 업고 팀이 한층 더 성장할 계기가 되는 전지훈련이 되도록 주장으로서 솔선수범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동환 기자

광주시체육회, 지정스포츠클럽 공모 국비 12억 추가 확보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2025년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지원사업’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달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당선돼 11억5000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1억2000만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총 12억4000만원을 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억40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것은 동구스포츠클

럽, 거점스포츠클럽, 빛고을스포츠클럽, 광산남부스포츠클럽 등 4곳의 특화프로그램이다. 또 특화프로그램이 20개에서 23개로 늘어 시민들의 스포츠 배움의 기회도 확대됐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사업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시민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스포츠클럽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 분야의 공모사업에 도전해 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이나현이 11일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뒤 태극기를 들고 링크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서 메달 무더기 추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남 팀 추월 은·女 팀 추월 동메달 이승훈, 역대 최다 메달 9개 新 차민규, 1000m서 은메달 추가 ‘첫 출전’ 이나현, 4번째 메달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 5일차를 맞은 11일, 한국 선수단은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선전을 이어갔다.

이승훈(알펜시아), 정재원(의정부시청), 박상인(한국체대)으로 구성된 남자 팀추월 대표팀은 이날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 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대회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 결승에서 3분47초99의 기록으로 중국(3분45초94)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살아있는 전설’ 이승훈(알펜시아)은 은메달을 추가하며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기록을 경신했다.

이승훈은 2011 아스타나-알마티 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고 직전 대회였던 2017 삿포로 아시안게임에서 4관왕을 달성한 바 있다. 아시안게임 메달 9개를 획득한 이승훈은 쇼트트랙 레전드 김동성(금3·은3·동2)을 제치고 역대 메달 획득 순위 단독 1위에 올랐다.

남자 1000m 경기에서는 단거리 전문 차민규(동두천시청)가 은메달을 차지했

다. 차민규는 결승선을 1분9초63의 기록으로 통과하며 중국의 닝중옌(1분8초81)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 남자 팀 스피드스케이팅 은메달에 이어 두 번째로 거머쥔 은메달이다.

스피드 스케이팅 단거리 기대주 이나현(한국체대)은 이날 여자 10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이번 대회 4번째 메달을 차지했다.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에서도 메달을 추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박지우(강원도청), 정유나(한체대), 김윤지(동두천시청)로 구성된 대표팀은 3분10초47의 기록으로 중국(3분02초75), 일본(3분05초52)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박찬 기자